

2022년도 제2회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

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21호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3. 제출일자 : 2022년 7월 13일
4. 회부일자 : 2022년 7월 14일

II.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

1. 제안이유

- 정부 2차 추경에 대한 매칭 시비확보 및 결산에 따른 정리추경 등을 위해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.

2.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

-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

총규모는 52조 1,841억 6천 8백만원으로,
 기정예산 45조 8,132억 5천 9백만원에
 대비하여 13.9%(6조 3,709억 8백만원) 증가함.

- 회계별로는

일반회계가 37조 9,556억 7천 9백만원으로,
 기정예산 대비 16.9%(5조 4,819억 6천 9백만원) 증가하였고,
 특별회계는 14조 2,284억 8천 9백만원으로,
 기정예산 대비 6.7%(8,889억 3천 9백만원) 증가함.

< 서울특별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추경예산안	기정예산	증 감	증감율(%)
계	52,184,168	45,813,259	6,370,908	13.9
일반회계	37,955,679	32,473,709	5,481,969	16.9
특별회계	14,228,489	13,339,550	888,939	6.7

3.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 개요

가. 세 입

- 2022년도 제2회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예산은 없음.

나. 세 출

- 2022년도 제2회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116억 7백만원으로, 기정예산(115억 1천 1백만원) 대비 9천 6백만원(0.8%)이 증액됨.

<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추경예산안 (A)	기정예산 (B)	증 감 (B=A-B)	증감율(%)
	계	11,607	11,511	96	0.8
일반회계	행정운영경비	125	125	-	-
	사 업 비	11,481	11,385	96	0.8

- 1인가구 주거안심상담 지원서비스 운영 확대(자치구 5개소 → 15개소)에 필요한 9천 6백만원을 증액함.

Ⅲ. 검토의견

1.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

가. 세 입

- 2022년 제2회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없음.

나. 세 출

- 2022년도 제2회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116억 7백만원으로, 기정예산(115억 1천 1백만원) 대비 9천 6백만원(0.8%)이 증액됨.
- 1인가구가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전·월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안심상담 지원서비스 사업의 확대 운영을 위해 9천 6백만원을 추가 편성함.

<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>

(단위 : 백만원)

사 업 명	추경예산안 (A)	기정예산 (B)	증감 (A-B)	증감사유
1인가구 주거안심상담 지원서비스	150	54	96	- 운영 대상 자치구 확대 (5개소→15개소)

2. 주요 사업 검토

가. 1인가구 주거안심상담 지원서비스 운영

- 1인가구 맞춤형 부동산 전문상담과 동행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거 마련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9천 6백만원(178%)이 증가한 1억 5천만원을 편성함.

< 주거안심상담 지원서비스 예산 산출내역 >

(단위 : 백만원)

추경예산(안)	기정예산	증 감	산출내역
150	54	96	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4 ■ 사무관리비 2

- 지난 7월 4일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현재 5개 자치구(중구·성북·서대문·관악구·송파구)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 주거안심매니저(공인중개사)로부터 계약 상담과 현장 방문을 지원 받고 있음.

< 주거안심상담 지원서비스 사업 개요 >

- ▶ 사업기간 : 2022년 7월~12월(6개월)
- ▶ 대상지역 : 기존 5개소(중구, 성북구, 서대문구, 관악구, 송파구), 10개소 확대
- ▶ 지원내용 : 전·월세 계약상담, 주거지 탐색, 현장방문동행, 주거정책안내
- ▶ 운영방식 : 주거안심매니저(공인중개사) 배치, 무료이용
- ▶ 운영시간 : 매주 월, 목 13:30~ 17:30

- 「2021 서울특별시 1인가구 실태조사」에 따르면, 서울특별시 1인가구 중 69.4%가 전월세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세대별로 비교할 경우 2030 청년의 전월세 거주 비율이 93.1%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.
- 이에 서울특별시는 「1인가구 4대 안심정책」(2022.1)에 주거불편 해소를 위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전 자치구에 확대할 계획을 밝힌 바 있음.
- 하반기 자치구 수요조사에서 총 12개 자치구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, 현재 추진 중인 5개소 외에 10개소의 신청이 있어 추가로 예산편성을 요청하게 된 것으로 파악됨.
- 부동산 계약경험이 부족하고 혼자 집보기가 불편한 1인가구의 주거마련을 돕고 불법건축물 임차, 이중계약, 깡통전세 등 주택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.
- 다만, 지역 공인중개사를 연계하는 운영방식은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바, 이 사업의 확대 운영에 앞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겠으며, 시범서비스가 올해 시작된 만큼 사업의 수요와 효과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됨.